



기윤실은 한국교회,
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응답하는
서포터스가 되겠습니다

회원소식지
2007 09+10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07 09+10' 통권 207 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전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신뢰받는 기독교인과 교회가 되도록 심기며, 타자를 배려하고 환대하는 문화를 통해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 3 기윤실 전국 실행위원 수련회 개최강연
- 4 기윤실 전국 실행위원 수련회 후기
- 6 이랜드 노사 문제에 관한
진상조사단 활동을 마치며
- 9~10월 활동계획
- 8 예수의 정치적 출판강연회,
교회신교회복네트워크 안내 등
- 10 기윤실 20주년 기념사업안
- 6~7월 회계보고
- 11
- 6~7월 후원명단
- 12
- 14 제1기 창의여성리더십 아카데미
- 15 권고 무례한 기독교
- 16 기윤실 20주년 회원초청특강

'심기는' 사람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07년 09+10월호
통권 207호
주소 140-011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217 세대빌딩 401호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E-mail cemk@cemk.org
홈페이지 www.cemk.org
발행인 우창록
발행일 2007. 9. 10
편집인 양세진
편집 조계호
디자인 김윤

이사 우창록(이사장)강영란 권장희 김남호 김동호 김일수 김홍식 박상은 박은조 방진기 백종국 송인수 신국현 신권범 오정현 이동원 이의용 이장규 전재중 정현구 조홍식 주광순 감사 김경숙 김충환 자문위원 손봉호(위원장)김경섭 이효계 공동대표 강영란 김동호 김일수 백종국 이장규 정직신회성증진운동본부 김병연(본부장) 살의정치·윤리운동본부 김선옥(본부장) 생활형성실천운동본부 신동식(본부장) 기독교윤리연구소 노영상(소장) 강영란 김병연 박노옥 박준용 손화철 송해봉 신국현 정성진 최재덕 추대호 최태연 정책평가위원회 임성빈(위원장) 이장호 이장규 최형우 디지털영자문위원회 이순인(위원장) 이재우 정용태 최철용 사회복지위원회 이영귀(공동위원장) 조홍식(공동위원장) 두준기(부위원장) 권오용 강영실 김동배 김경식 김동연 김미혜 김수경 김현호 김해란 라창호 박정수 박정수 백은령 손인용 송시섭 신산철 신정훈 오세란 오창섭 유의용 이기영 이만동 이무영 이상근 이영분 이창희 장동한 조재호 조태래 최성재 신뢰받는 리더만들기위원회 이용기(위원장) 권혜실 김인숙 박재우 신학위원회 김영일(위원장) 김동훈 김은혜 김형민 노영상 문시영 민종기 박득훈 송준진 신국현 신기형 신원하 양낙홍 유경동 이상현 이희배 임성민 정광덕 정원범 정종훈 조용훈 홍순원 황봉환 창의여성리더십위원회 김은혜(위원장) 신재용 심경미 정성진 정희희 최정은 회원가치위원회 김일진 김광숙 사무총장 양세진 사무처 안금주(부장) 조계호(부장) 최옥준(간사) 김문(협동) 김지숙(협동) 윤나래(협동) 한병선(협동) 배은경(인턴) 기윤실네트워크 광주 대구 부산 안동 울산 익산 인천 전주 진주 LA 워싱턴 협력단체 공의정치실 천연대·교회개혁실천연대·교회문화연구소·기독교경영연구원·기독교번화사회·기독교학문연구회·낙태반대운동연합·놀이미디어교육센터·크리스천라이프센터·성서한국·좋은교사운동·직장사역연구소·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기윤실네트워크 담당자 연락처

광주 | 조영미 국장 062-222-5382 부산 | 이재안 간사 051-462-1558 인동 | 권정훈 간사 054-857-7025
울산 | 류형철 간사 052-285-2072 익산 | 박병주 목사 063-831-7487 인천 | 우준은 간사 032-467-2740
전주 | 김윤배 목사 063-644-0492 진주 | 조세인 간사 055-753-1484 청주 | 이창호 국장 043-274-5852
LA | 유윤식 장로 cem_la@yahoo.com 워싱턴 | 김창제 장로 info@cemusa.org



*손봉호 자문위원장

기윤실 네트워크 전국 실행위원수련회 '개회강연

신앙과 행동의 일치를 향한 윤리운동

기윤실의 초기 운동은 검소·절제운동이었고, 저도 40년 이상 된 옷을 오늘 입고 왔습니다. (웃음)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과거의 위기와 달리 현재의 위기는 우리가 잘못해서 당한다는 점입니다. 탈레반의 종교적 광신이 얼마나 재앙인가를 볼 수 있는데, 한국교회 역시 단군상의 머리를 자르는 등 광신적인 행동으로 위기를 불러 왔습니다. 안티 기독교 네티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비판이 근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07년의 대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는 눈물과 함께 통회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죄에 대해 사과하고 변상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삭개오가 통회했다는 언급은 없으나 행동으로 4배를 변상하였는데 율법에서는 두배를 변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기독교인을 인정해주는 것은 선한 일을 할 때입니다. 이전에는 장거리 박사와 같은 분들이 있었으나 지금 한국교회는 그러한 신앙의 유산을 탕진하였습니다. 얼마 전,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을 때 1위가 삶과 말이 불일치한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신앙과 행동의 불일치가 교회가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이며,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윤리적이면 주변인에게 이득을 미치지만 반윤리적이면 피해를 입힙니다. 기독교인은 손해를 보더라도 윤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덩치 큰 한국교회가 비윤리적이 되면 폐해도 크게 끼치게 될 것입니다.

진보적인 사람은 윤리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변혁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윤리는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사회변화가 함께 수반되는 것이 진정한 윤리이며, 그러한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 윤리적 삶입니다. 또, 어떤 이는 윤리적이면 되는 것이지 무슨 운동이 필요하냐고 하는데 개인을 둘러싼 문화가 잘못되면 윤리적이기 어렵기 때문에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윤실은 한국에서 현대적 의미의 시민운동을 가장 먼저 한 단체입니다. 보통 시민운동단체의 시작이라는 경실련이 2년 후에 출범하였습니다. 기윤실은 사회와 교회 모두를 대상으로 한 운동을 해야 하는데, 교회는 이미 힘이 있는 곳이고, 힘이 있는 곳은 부패하기 마련인데, 민주주의가 되려면 비판과 감시가 필요하므로 교회 역시 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비난을 이겨내려면 교회가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선한 행실을 하도록 기윤실은 교회를 계속해서 돕고 섬겨야 하겠습니다.



* 녹취 : 윤나래 간사

“빨리 먹으려면 혼자 먹어라, 그러나 맛있게 먹으려면 함께 먹어라” *글 ' 류형철 간사(울산기윤실)

기윤실 네트워크 전국 실행위원수련회 '후기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청원군 청소년수련관에서 1박 2일 동안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는 주제로 열린 기윤실 네트워크 전국 실행위원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마쳤습니다. 전국의 8개 기윤실 네트워크와 창립준비중인 대전지역까지 9개 지역 50여명이 모인 이번 수련회는 2020 비전 선포 이후 네트워크 체제로 전환한 기윤실 전국 네트워크 실행위원들의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며, 한국 교회와 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한 기윤실의 비전을 공유하고 공고화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날 건강탕을 먹으러가는 대신 사실 건강탕은 입에도 못뭇 너무도 무더웠던 지난 8월 14일
복날 복날 하늘에서 내리는 은총과도 같은 시원한 소나기 줄기를 맞으며 기윤실 네트워크 전국 실행위원 수련회가 열리는 청주 대청호의 청소년수련관으로 향했다.

과거 대통령의 별장이었던 청남대가 자리하고 있을 만큼 수려한 자연환경의 대청호 주변은 실행위원수련회 장소로는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초행길이라 늦을까 일찍, 그리고 재빠르게 움직인 덕분에 약속된 2시 전에 도착할 수 있었다.

수련관에 도착하였지만 왠지 황한 분위기, 썰렁~ 여기가 아닌가?

고속도로 사정으로 서울 기윤실 팀들이 아직 도착하지 못한 이유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국에서 오신 기윤실 네트워크 실행위원님들과 관계자 분들의 얼굴을 반갑게 볼 수 있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만난 친형제, 오누이처럼 반갑게 인사와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 수련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손봉호 자문위원장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고 빛내는 기윤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되자는 개회설교에 이어 우창록 이사장님의 진심어린 환영과 인사말씀을 들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지어준 1식 3찬의 깔끔하고 정갈한 저녁밥상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난 뒤 서울기윤실 이장규 공동대표님의 사회로 기윤실 20주년 기념사업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기윤실의 지난 20년의 추억과 개인적 소감을 나누면서 지나간 20년간의 빛나는 기윤실을 정리하고 기념할 수 있는 특별 기념사업과 이제 앞으로 다가올 20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의견을 나누었다.

이후에는 부산기윤실 주광순 공동대표님의 사회로 기윤실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는데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한결 같은 목소리는 기윤실 네

트위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세워 주고 섬기는 유기체적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개인적으로는 결국 기윤실 네트워크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실무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실무간사들의 경쟁력과 역량이 아닐까 하는 측면에서 간사들에 대한 임파워먼트 제고와 그리고 기윤실 정신을 계승하여 시대와 상황에 희망적 해답과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간사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늦은 시간까지 공식적인 행사를 마무리하고 회담자들은 야간 대청호 관광을, 울산기윤실은 너무나 열띤 토론이후 1식 3찬의 에너지를 다 소모한터라 야식전선에 조영진 실행위원님을 급파, 그 한밤 산중 어딘가에서 튀겨온 닭과 - 후시 썸이 아닐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 컵라면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첫날 수련회를 마무리했다.

수련회 둘째날 아침 울산기윤실 대표이신 이창희 목사님의 인도로 아침묵상 겸 기도회 시간을 가졌다. 8·15 광복의 날 아침에 진정한 해방과 자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적 감미로움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다.

아침식사 후 예정되었던 숲속 줄타기는 다행히 취소되었고 - 12칸 사다리예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들 후들 - 기독교윤리연구소 소장이신 노영상 교수님의 공공신학 강의를 들었다.

미국의 잘 알려진 기독교 화가의 작품해설까지 곁들여진 강의에서 내내 강조된 '브릿지'는 결국 공공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세계의 가교 역할을 하는,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대중신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김일수 공동대표님의 아쉬움 서린 폐회사 이후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던 무지갯빛 송어 회로 오찬을 함께 하며 기윤실 네트워크, 한 몸 공동체로서의 의의 성실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고 우창록 이사장님의 말씀처럼 매년 8월 14, 15일은 기윤실 네트워크 전국수련회로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귀하고 아름다운 수련회를 위해 수고하신 청구기윤실과 서울기윤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기윤실 실행위원 수련회 영상 스케치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랜드 노사 문제에 관한 진상조사단 활동을 마치며

기업으로서 이랜드는 오랜 시간 동안 단지 기업 중 하나가 아니라 한국 개신교 교회의 자부심으로 상징적인 위치를 점해 왔다. 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랜드의 경영진과 대다수의 직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기적인 기도모임과 성경공부 그리고 정직한 납세를 추구하는 경영 모습에서 기독교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 왔다. 그런 점에서 흠에버와 뉴코아의 비정규직 사태를 통해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논란이 되면서 기윤실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윤실이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전문적인 능력과 안목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있었지만, 언론 보도만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다 정확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실체적 진실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파악과 조사를 위해 전문적인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진상조사를 전개하기로 하고 기독교경영연구원, 기독교변호사회와 함께 김일수 교수(고려대 법대, 기윤실 공동대필)를 단장으로 하는 공동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동안 기독교인과 한국 교회는 일반적으로 크리스천 CEO가 경영하는 기업을 기독교기업으로 이해하는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다. 회사 내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지, 성경공부를 한다든지, 혹은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정직한 납세를 하는 행위를 통해서 기독교 기업을 표방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들로 기독교기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이랜드 사태는 많은 물음을 던져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과연 크리스천 CEO가 경영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독교기업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기독교 기업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있기에 일방적으로 기독교기업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은 조심스러운 현실이다.

지난 한달 가까운 기간 동안 진상조사 활동을 수행하였지만, 자료 접근의 한계와 현상의 복잡한 이슈에 대한 문제 파악 능력의 한계 등으로 정말 처음의 의도와 같이 전문적이고 공정한 활동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남겨 주었다. 우선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내



부의 노사갈등의 문제를 넘어서 정치경제적인 문제와 이념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정부의 책임성 없고, 일관성 없는 대응, 민주노총의 무리한 개입,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법과 하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노조에 대한 이랜드 경영진의 왜곡되고 제한적인 인식 등이 종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상황을 진상조사단의 활동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술해 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복잡계로서 이랜드 사태는 복잡한 상황을 그 자체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기윤실은 이 사태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다양한 관점을 무리하게 종합하거나 통합하려 하지 않았다. 경영적 측면, 법적인 측면, 정치·경제적 측면 등 다양한 관점으로 이 문제가 해석되고 이해되어지는 현실을 그대로 다 담아낸 보고서를 정리하였다. 그 이유는 당초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때에는 실제적 진실을 파악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 정리가 목표이었으나, 진상조사단 활동을 전개하고 난 뒤의 잠정적인 결론은 법적, 정치적, 경제적인 측면들이 복잡하고, 역동적으로 얽혀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간단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최종 보고서는 결론으로 어떤 입장을 제시하기 보다는 이번 이랜드 사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한국교회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고 체계적인 사고와 숙고를 도울 수 있는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제한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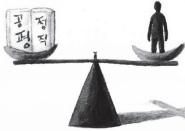
2007년8월31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변호사회, 기독교경영연구원

진상조사단

단장 **김일수**(고대 법대 교수, 기윤실 공동대표) 위원 **황호찬**(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기독교경영연구원), **전재중**(연호사, 기독교변호사회 대표), **김선옥**(승실대 철학과 교수, 기윤실 삶의정치·윤리운동 본부장), **양세진**(기윤실 사무총장)
간사 **조제호**(기윤실 부장)

정치에 있어서의 기독교적인 것의 의미



민중기 목사 초청 기독교와 정치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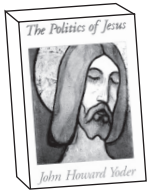
일정 | 2007년 9월 7일(금) 오후 7시 ~ 9시

장소 | 명동 청어람 1실

발제 | 민중기 목사(LA총현선교교회, 전 기윤실 교육위원장)

공동주최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청어람아카데미

존 요더의 **예수의 정치학** 출판 기념 강연회



기윤실과 IVP, 청어람 아카데미에서는 미국 기독교윤리학의 거장인 존 하워드 요더의 “예수의 정치학” 출판 기념 강연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이번 강연회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당정치를 넘어 그리스도인에게 기독교윤리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무엇인지 도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정 | 2007년 10월 8일(월) 오후 7시 ~ 9시

장소 | IVF 중앙회관(홍대입구역 1번출구)

사회 | 김선옥 교수(숭실대)

발제 | 신원하 교수(역자, 고신대), 권연경 교수(역자, 안양대)

주관 | 기윤실 삶의정치·윤리운동본부

공동주최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IVP, 청어람아카데미

*참가비는 없으며, 당일 “예수의 정치학” 한글판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조제호 부장(070-7019-3757, jehoc@hanmail.net)



CTN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단신


- 교회신뢰네트워크가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로 단체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맞는 새로운 CI를 제작하였습니다.
- 9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던 창립식은 내부 사정으로 인해 연기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한국교회 신뢰지표가 130명의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최종 개발단계에 있습니다. 10월 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www.trustchurch.net)

교회 저작권 가이드북 제작

목적 ① 교회에서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불법 저작권 사용 문제에 인식 전환을 도모한다.

② 불법 저작권 사용에 대한 인식 전환을 넘어 현 제도하에서 합법적인 저작권의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를 한다.

제목	저작권은 생활입니다!(가칭)
내용	어는 글 왜 교회가 저작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저작권이란? 저작권 왜 중요한가? (경제적·사회적·성경적 의의) 교회가 저작권을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교회내 저작권 해당 사례 그림 구체 항목별 가이드 제시(소프트웨어·음원악보·이미지영상) FAQ 대안제시 및 저작권 관련 도움처

 교회 저작권 가이드북은 현재 준비중이며, 10월 중 발간 예정입니다.

제작 후 PDF 파일로 변환하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문의 ① 조재호 부장(070-7019-3757, jehoc@hanmail.net)

산막처·회원모임 일정

9·20(목) 오후 7시	명동 청어람	기윤실 20주년 회원연속특강 : 김동호 목사
9·16(토) 오전 10시	명동 청어람(예정)	공공신학(Public Theology) 심포지엄
10·22(월) 오후 3시		기윤실 20주년 기념토론회
10·22(월) 오후 6시		동역교회 목회자 초청의 밤
10·26(금)~27(토)	서울유스호텔	기윤실 네트워크 실무자수련회

8월 회의·모임 보고

8·2(목)	기독교업, 기독교영역에 대한 토론회
8·14(화)~15(수)	기윤실 네트워크 전국 실행위원수련회(대청호)
8·21(화)	천주교 서울대교구 2006년 재무제표 공개에 대한 논평 발표
8·23(목)	상임집행위원회
8·27(일)	5회 회원가치(value+together)마당
8·31(금)	간사 비전 워크샵(강산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기윤실 20주년 기념 사업안



별리 가라기면 혼자 가라. 20주년 별리 가라기면 함께 가라.

※ 기윤실 2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20년 동안의 기윤실 사역을 신학적, 교회론적, 시민운동론적으로 평가하고 성찰하며, 아울러 새로운 20년을 전망하는 비전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위해 기념토론회와 회원초청특강, 동역교회 초청의밤, 신학대학원생 논문경시대회, 회원수필 모음 대회, 기윤실 로고송 제작, 기윤실 기념 문집을 제작한다.

주요 사업 소개 | 기념 토론회

1. 회고와 전망 | 10월 22일(월) 15:00~17:00, 장소 미정

2. 공공신학 심포지엄 | 10월 6일(목) 10:00~15:00, 명동 청어람(예정)

④ 동역교회 초청의 밤 : 10월 22일(월) 18:00~20:00, 장소 미정

기윤실 20주년 비전은 한국교회와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기윤실을 후원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을 만들어갈 교회의 담임목회자를 초청하여 감사와 연대의 시간을 갖는다.

④ 회원초청 특강-영성과 윤리

9월 20일(목) 오후 7시 : 김동호 목사 (높은뜻송의교회)

연속강좌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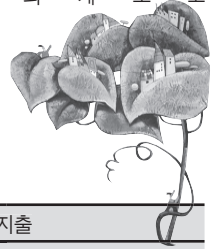
④ 포털사이트 제작 기윤실 사역을 소개하고 기독교 내 종합적인 정보와 의견이 공유되는 포털 사이트를 기획하여 제작한다.

④ 2008년 상반기 지역 기윤실과 함께 특강을 준비하여 진행.



이상 소개된 20주년 기념 사업들 외에 회원님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더해서 보완해 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아픈간 의료봉사단 파택 사태를 계기로 한국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윤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감당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그 내용을 2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실행할 예정입니다. 20주년을 맞이하는 기윤실이 한국 교회 신뢰회복을 위해 더욱 성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월



수입		지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I. 사업수익	44,619,000	I. 사업비용	31,046,808
① 회비	24,844,000	① 인건비	8,629,852
㉠ 회원회비	22,114,000	② 사무관리비	7,957,176
㉡ 이사회비	1,970,000	③ 사업비	14,459,780
㉢ 지역회비	760,000	㉠ 사업인건비	8,151,210
② 일반후원금	19,077,000	㉡ 사업행사비	1,355,590
㉠ 교회,기관후원금	19,027,000	㉢ 홍보사업비	2,902,000
㉡ 간사후원금	50,000	㉣ 교육훈련비	368,220
③ 특정후원금	698,000	㉤ 지역사업비	1,682,760
II. 사업외수익	454,666	II. 차입금상환	13,926,978
수 입 계	45,073,666	지 출 계	44,973,786
당기 감소액		당기 증가액	99,880
총 계	45,073,666	총 계	45,073,6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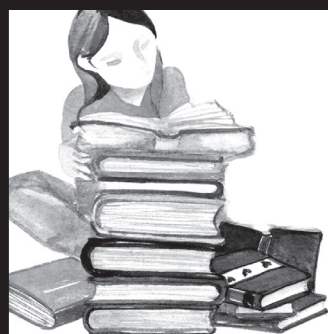
기간'2007년 06월 01일부터 2007년 07월 31일까지

기윤실 후원구좌 (예금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국민은행 037-01-0504-979 | 우리은행 821-05-002520 | 농협 074-01-121183 |
 우체국 012401-01-001137 | 기업은행 70-013538-01-022 | 제일은행 377-10-025628 |
 신한은행 326-05-010678 | 하나은행 109-228746-00104 | 외환은행 144-13-05572-6 |
 씨티은행 136-50810-258 |

간사 후원구좌 (예금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국민은행 812-01-0115-671 | 지로번호 7530353



기원실 창의여성리더십 아카데미

제1기 기원실창의여성리더십아카데미에 복음의 열정과 비전을 가진 여성리더를 초대합니다.

기원실은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살아있음을 증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다소 수동적이고 제한된 영역에서 섬기는 역할에 머물렀던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부르심을 새롭게 드러내고, 여성에게 원하시는 리더십이 무엇인지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려 합니다.

‘창의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의 핵심가치는 ‘창의’와 ‘임파워먼트’입니다. 창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하고 특별한 특성일 뿐만 아니라, 현재 인류의 고통과 문제 앞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교회 청년 여성들의 시대정신입니다. 또한 기원실이 여성리더십운동에 창의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원실 창립 20주년 기념을 계기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여성들 스스로의 가치와 능력을 깨닫고, 연대와 소통을 통해 힘을 키워내려 합니다. 교회와 사회에서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더불어 성장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관계를 지향하는 여성 리더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정 - 2007년 10월 15일~11월 26일(7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9시

○ 장소 - 명동 청어람(예정)

○ 내용 -

주제	강사
1주 10·15 21세기를 이끌어 가는 여성 리더십	김은혜 교수(송실대, 창의여성리더십위원장)
2주 10·22 성경속의 여성 리더들	김호경 교수(서울 장신대)
3주 10·29 교회의 공공성과 여성 리더십	양세진 사무총장(기원실)
4주 11·9· ^코 소그룹 내에서의 영성과 리더십	이상화 사무총장(한복협)
5주 11·12 여성 리더의 일과 삶의 균형	김선민 박사(등촌4종합사회복지관, 회원가치모임위원장)
6주 11·19 성령의 임파워링과 여성 리더십	김은혜 교수(송실대)
7주 11·26 전체 워크숍* 및 수료식	각자의 리더십 비전 지도 발표

○ 수강료 - 2만 원(전회 참석자에게는 전액 돌려드리고 과정을 우수하게 마치신 두 분께는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장학금으로 드립니다)

○ 수강신청 기간 - 10월 8일(월)까지, 내실있는 준비를 위해서 아카데미 1주 전까지 수강료를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 워크숍은 참석자들과 일정을 조정하여 1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입금계좌 - 하나은행 109-228746-01205(예금주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문의 - 윤나래 간사(joyfuln@dreamwiz.com, 017-539-7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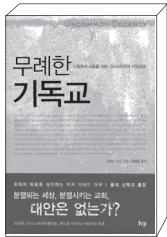


Uncommon Decency

무례한 기독교

다원주의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시민교양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다른 신념, 문화, 사고를 갖고 있는 자들에
인내하면서 기독교적인 예의를 견지하도록 하는 교양과 성품을 함양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때에 이 책이 번역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재 한국 교회에는 마우가 요구하는 기독교적 교양이 시급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신원하 교수(고신대, 기윤실 신학위원)



분열되는 세상에서 요구되는 그리스도인의 예의란 무엇인가

수많은 가치관들이 교차하고 다양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저마다의 거친 목소리를 내며 살아가는 이 분열된 시대에, 공적인 영역에
관여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강압적인 태
도로 일관하는 것을 쉽게 보게 된다. 이런 태도는 역사적으로 기독교
전통 안에서 정당화되어 왔고, 믿음을 입증하는 증거로까지 여겨
져 왔다. 그러나 리처드 마우는 이런 무례한 태도가 잘못된 하나님

이해와 인간 이해에서 비롯한 것임을 지적하고, 신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겸손하고
교양 있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서의 논증 속에서 저자 자신의 경험과,
그로 인해 더욱 넓어지고 깊어진 신학적 이해를 들여다볼 수 있으며, 함께 살아가는 시민
적 삶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발견할 수 있다.

IVP / 리처드 마우 지음 / 홍병룡 옮김 / 신국 196면 / 값 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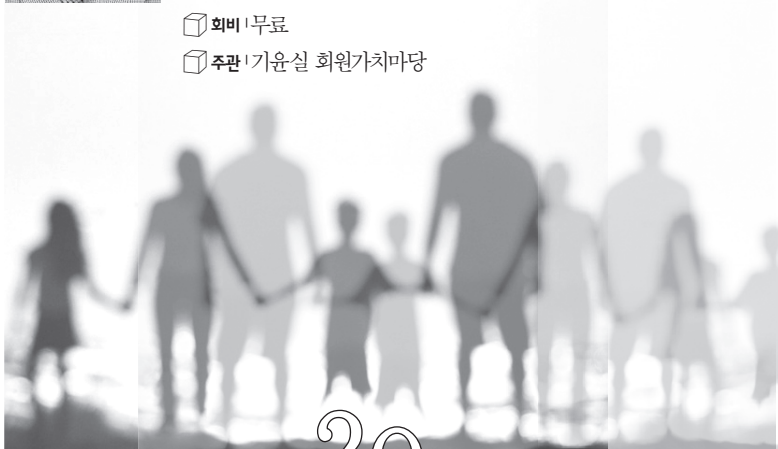
리처드 마우(Richard Mouw)는 칼빈 대학교에서 17년 간 철학을 가르쳤고, 이후 풀러 신학교에서 기독교 철학 및 윤리학을 가르쳤다. 현재는 풀러 신학교의 총장으로 저술과 강연, 기고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Holy Worldliness, 「왜곡된 진리」(CUP) 등이 있으며, 웹 매거진 Beliefnet의 고정 칼럼니스트이기도 하다.

무례한 **기독교**를 넘어서 : 다원주의 사회와 복음에 합당한 삶



기윤실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9월부터 회원초청특강을 진행합니다. 그 첫번째 시간으로 김동호 목사님(공동대표, 높은뜻승의교회)을 모시고 “무례한 기독교를 넘어서: 다원주의 사회와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진행합니다. 10월부터의 안식년을 떠나시기 전 기윤실 회원들과의 만남을 위해 시간을 내 주신 김동호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일시 | 2007년 9월 20일(목) 오후 7시 ~ 8시 30분
- ☐ 장소 | 명동 청어람 지하소강당(명동역 3번출구)
- ☐ 회비 | 무료
- ☐ 주관 | 기윤실 회원가치마당



기 | 윤 | 실 | 20 | 주 | 년 | 회 | 원 | 초 | 청 | 특 | 강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140-011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전화 | 02-794-6200 팩스 | 02-790-8585
이메일 | cemk@cemk.org 홈페이지 | www.cemk.org